



4면

"학교 중심 인력 효율화 방안 추진 중"

전주매일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음 8월 27일) 제336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지로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빌 6번지



9일(현지시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미국 자매교류지역인 워싱턴주를 방문한 가운데, 시애틀 메이든바우어센터에서 열린 전북공공외교한마당에서 김관영 지사, 서은지 시애틀 총영사, 크리스 길던 상원의원, 제프 워싱턴주 국제의전 국장,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단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특자도 도시브랜드 도민 손으로 직접 만든다

도민참여단 '전북+' 발족
도민 의견 수렴 필요한
온·오프라인 활동 참여
함께 열린 도민 원탁회의서
슬로건 개발 등 참여 활동

대표적인 사례로는 브랜드에 스토리를 입혔다고 평가받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I amsterdam 이 있다. 한편 발족식에는 약 200여명의 도민 참여단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선포 시까지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안내 △도시브랜드 개발 추진상황 공유 △도민 원탁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도민 원탁회의에서는 도민참여단을 약 20여개의 조로 나눠 전북특별자치도를 나타내는 핵심단어(키워드)를 도출하고, 도출된 핵심단어를 조합해 다양한 슬로건을 개발하는 등 참여 활동을 진행했다. 김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 참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다"며, "도민참여단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美 워싱턴주서 전북의 매력 뽐내다

도, 공공외교 한마당 열고 태권도·판소리·서예 등 선배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본격 재개... 워싱턴주로 선정

전북도는 미국 자매교류지역인 워싱턴주에서 전북의 전통공연 및 한지 공예 전시 체험을 운영하는 전라북도 공공외교 한마당을 펼쳤다. 이번 공공외교 한마당은 9일 오후 6시(현지시간)부터 벨뷰 메이든바우어센터에서 태권도 공연, 판소리, 난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또한, 현지시간으로 10일 오전 9시 35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올해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한 타코마시의 스타디움 고등학교에서 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공연과 전통공예 체험행사가 이어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행사장 곳곳에서 만난 재외동포와 현지인들에게 "전라북도의 별칭은 한국 속의 한국이다. 케이(K)-결쳐의 본 고장이자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예향이다"며 "우리 전북을 한국문화의 뿌리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도가 준비한 전통문화 한마당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워싱턴 주민, 한인 예술인 문화예술체육 단체 및 학생,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워싱턴 주에서 개최되는 전라북도 공공외교 한마당은 해외 홍보 및 문화 교류를 위해 매년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공연 및 전시 행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30년 가까이 교류의 역사를 가진 전라북도 자매지역 워싱턴주를 선정해 열게 된 것이다. 메이든바우어 센터에서 포문을 연 전북의 특색있는 공연은 태권도와 세계무형유산 판소리, 젊은 예술인들의 열정이 담긴 난타가 현지인들의 시선

과 흥을 끌어올렸다. 워싱턴 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태권도 공연은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참가했다.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1992년부터 개최되어 온 세계태권도 한마당에서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우승을 한 팀으로, 특히 올해 대회에는 57개국 5,000명의 선수가 참가, 역대대회 최고점 우승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연팀이다. 특히 이번에 참가하는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이 지난 2021년 아메리카 태권도 대회에서 4강 진출한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있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태권도 공연을 펼쳐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판소리 공연이 펼쳐졌다. 국립민속국악원 방수미 명창은 KBS 국악 대상, 대통령상, 젊은 예술인상 등 각종 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공연에 글로벌 스타인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한국을 대표해 공연한 바 있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명창으로 수준

높은 판소리 공연을 선사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사제 전시인 '세계사제전북비엔날레'로 '한국사제'의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윤점용 집행위원장의 서예퍼포먼스와 방수미 명창의 전북비엔날레의 콜라보 무대는 이번 공연의 백미로 꼽혔다. 전북의 젊은 난타 퍼포먼스 '조이풀' 그룹의 시원한 난타 공연도 펼쳐져 흥을 최고조로 북돋웠다. 올해 8월 몽골 한국주간의 '몽골-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개막식 공연에 화려하고 노련한 퍼포먼스로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던 팀의 재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란 평가를 받았다. 로비에는 한지공예, 한글 서예 전시, 한지 체험, 탁본 체험 등 공연 전후로 다양한 전시 체험도 무료로 진행돼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전북도와 워싱턴주는 지난 1996년 우호협력협약서, 2004년 자매협약서를 체결한 뒤 30여년간 인적·문화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군산공항 대기질 조사

항공기 엔진 등서 발생 대기오염물질 관리 필요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공항 이용객 안전·건강 보호 위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찾아가는 환경민원창량'을 이용해 11일부터 12일까지 군산공항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8월 활주로 보수공사 후 다섯 달 만에 운항을 재개한 군산공항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공항을 찾는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항공기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연구원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공항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가스상

물질(SO2, O3, CO, NO2)과 기상 항목 등을 24시간 측정한다. 또한 지난해 최대 40만명이 이용하는 등 항공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공항 주변 오염원 현장조사와 측정 후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환경 컨설팅으로 깨끗한 대기질 관리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김호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북 유일의 하늘길인 군산공항의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학생중심 미래교육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더 청렴한 전북교육

**감질 관행
사라집니다**

더 청렴한
전북교육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